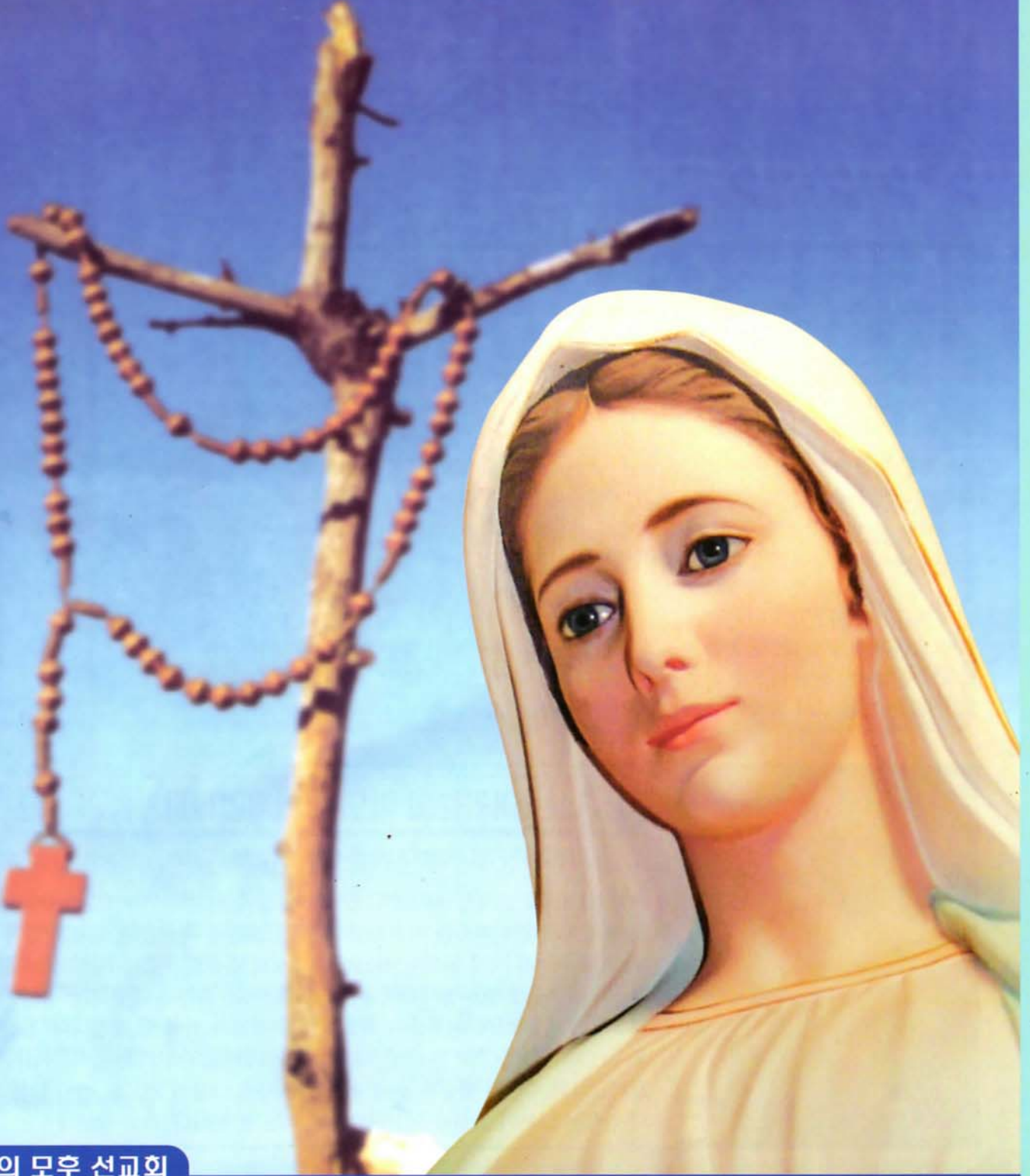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Medjugorje

JUNE, 2005 제 27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겸손하게 나의 메시지들을 실천해달라고 다시 한 번 초대한다. 특별히 나의 발현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나의 메시지들을 증거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으로 부터 멀어진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모두에게 어머니로서 축복을 내린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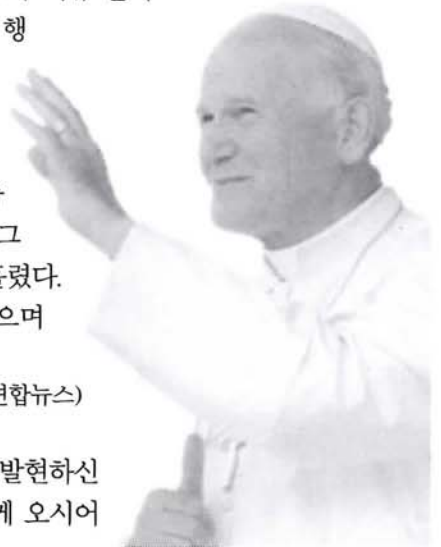
2005년 5월 25일 메시지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2005년 4월 2일 첫 토요일이자 하느님 자비의 축일 날, 파킨스 병과 패혈성 쇼크와 치유 불가능한 심부전 증세로 고통 받던 요한 바오로 2세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재임 27년, 갈등과 증오로 분열된 세상을 향하여 전쟁은 인류의 패배이며 총칼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라는 그분의 말씀을 온 인류는 기억할 것이다. 평화와 화합의 위대한 빛을 남기고 선종하기 전 그토록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내가 그대들을 찾아 다녔는데 이제 그대들이 내게 와주어 고맙다"는 메시지가 전해지자 세계의 젊은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날 세계는 국경과 종교, 인종을 넘어 하나가 되어 400만 명이 참석하였으며 60억이 메스콤을 통하여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염원했다.

(바티칸시티에서 AP·로이터=연합뉴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한 그 다음 날인 4월 3일, 목격증인 증인 이반에게 발현하신 성모님께서서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인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오시어 "내 아들은 오늘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다. (www.medugorje.org)



"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의지합니다."

리칭거 추기경 제265대 베네딕토 16세 교황 즉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4월 24일 오전 10시(로마 현지시간)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즉위미사를 거행하고 제265대 교황에 즉위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이 순간 저는 나약한 하느님의 종으로서, 모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소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인들이 저를 보호할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나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교회와 주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 인류 역사 안에서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입니다. 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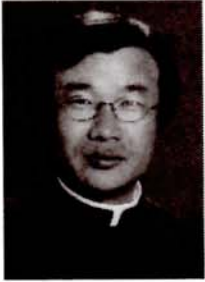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지향과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위하여 ...
- 교회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
- 31차 순례단과 그 가정들을 봉헌합니다.
- 홍지유 로사의 건강과 가족을 위하여 ...
- 성모님, 김아가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회개를 위하여 ...
- 낙태금지법과 기형적인 몸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하여 ...
- 예수님과 성모님께 mcalen 공소를 봉헌합니다.
- 성모님,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을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살펴 주세요.
-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언니와 동생의 가정을 보살펴 주세요.
- 아이들을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을 보살펴 주세요.
-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간 낙태아들의 영혼과 부모님들을 위하여 ...
- 메주고리에의 세계 청소년 기도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남편의 건강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
- 세상을 떠난 남편과 주님을 모를 때 낙태한 두 아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 33일 봉헌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지향을 위하여 ...
- 성모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은 믿음을 주세요.
- 성모님, 마약에 중독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올바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구해주세요.
제 목숨을바쳐 기도 드립니다.
- 성모님, 당신께 봉헌한 딸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고 늘 지켜주세요.
- 모든 어려움 중에도 믿음 안에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주님께 찬미드립니다.
-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그 동안 함께 해주신 예수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예수님과 성모님께 아이들을 봉헌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오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김선자, 정카타리나, 민마르코, 양미카엘라, 김헬레나, 공아네스, 켈마 할머니를 봉헌하며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5월 메주고리에 순례미사때와 요조 신부님께서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성모님은 첫 번째 감실이셨다.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평화의 모후선교회지도신부
종교 교육학박사/옥수동 본당 주임 신부



멜 깁슨의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침묵 속에서 아드님의 수난을 인내로이 지켜보시던 성모님께서 마침내 오열을 터뜨리시는 장면이다. 성모님께서서는 십자가로 다가가 못에 뚫려 피가 흐르는 당신 아드님의 발

에 입을 맞추시고 울부짖으신다. “내 심장에서 나온 심장이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여, 아들이, 나도 너와 함께 죽게 해다오.”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이 대목에서는 내 슬픔도 극에 달했고, 나 역시 비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루가 복음이 전하는 대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몸은 성모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피와 그에 수반된 온갖 영양분으로 만들어지셨다. 성모님의 태중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성모님과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그 분에게 주셨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몸을 만드신 분이셨고, 예수님을 당신의 몸에 간직하셨던 첫 번째 감실이셨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2003년 4월 17일에 반포한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에서 이를 확인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성모님께서서는 순결한 당신의 태를 하느님 말씀의 강생을 위하여 바치심으로써 성체 성사 제정 이전에 이미 성체 성사의 신앙을 실천하셨습니다. . . 주님의 탄생 예고 때에 성모님께서서는 몸과 피라는 육체적 실재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습니다. . . (루가 1,30-35 참조). 동정 성모님의 신앙과 일치하여, 우리도 성체 성사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성모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

도주의 형상 아래 그 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으로 현존 하심을 믿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루가1,45). . .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성모님께서서는 이미 사람이 되신 말씀을 잉태하고 계셨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현존하신 역사상 최초의 ‘감실’ 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 55항) . . .

메주고리예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평화의 모후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미사와 성시간을 통해 그 분을 흠송하라고 요청하셨다. 심지어 당신의 발현과 미사 혹은 성시간이 같은 시간이라면 당신의 발현에 오지 말고 미사와 성시간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그 곳에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비록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매일 미사를 드리고, 매 주 성시간을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함께 하심을 느낀다. 당신께서 몸과 피를 주신 아드님께서 현존하시는 자리에 어찌 그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기 않을 수 있겠는가?

현재 내가 주임신부로서 사목을 하고 있는 서울 대교구 옥수동 본당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에 성시간이 거행되고 있다. 우리 본당의 성시간은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본당에서 매주 수, 목, 토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성시간의 형식을 따라 진행된다. 성체를 현시한 후 50분 정도 기도, 침묵, 찬양을 반복한 후 사제는 성광을 들고 성체 거동을 하면서 신자들 사이를 돌며 성광으로 개별적인 강복을 주고, 다시 제대로 돌아와 신자들과 함께 주님의 자비를 기원하면서 전체 강복을 준다. 나는 강복을 주기 위해 성광을 들고 신자들 사이를 다닐 때 성체의 능력과 예수님의 현존을 더욱 강력하게 느낀다.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



성체 성사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이하러는 신자들의 진지한 모습, 거동하지는 성체를 향해 끊임없이 성호를 긋는 신자들의 정성 어린 모습, 그리고 그 옛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처럼 두 팔을 벌리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간청을 드리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나는 살아 계신 예수님의 현존과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 계신다. 특별히 성체 안에 살아 계신다. 우리는 1시간의 성시간 동안 성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성체 현시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다본다.

성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 분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신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 아니 우리

자신을 그 분께 드리면 그 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분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 용서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치유되고 선택되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 분께서는 참으로 살아 계신 착한 목자, 생명의 근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M**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이 제단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성체 성사)를 더욱 깊이 사랑하도록 너희들을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들의 분당에서 그 분을 흠송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온 세상과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의 친구가 되시고 너희는 그 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분에 관해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분과의 일치는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너희들은 예수님께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흠송할 때 너희는 또한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1995년 9월 25일)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서 주시는 축복을 성모님과 함께 가시드키며 찬미와 기도를 드립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은총과 치유의 성 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장소 및 문의 : 서울 옥수동 성당 (02-2297-2038)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묵주 기도와 거룩한 미사, 성체 강복 및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로야, 너를 만나려고 왔다."

이 내용은 "Medjugorje in the 90s" 책에 실린 글로서,
한 프랑스인 사제가 자신의 본당의 한 남자에 관해 직접 들려준 실화이다.

임마누엘 수녀

바로로는 성 야고보 성당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바로로의 곁에는 항상 술 한 병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는 앓고 있던 많은 병들 중에서도 특히 간경화로 혈색이 몹시 안좋았다. 이웃 주민들은 그가 조만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 교구에 사는 한 마음씨 좋은 N이라는 부인이 처음으로 그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부인은 그가 겪는 처절한 고통을 알게 되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다. 부인은 바로로가 아침이면 성당 현관의 자리를 잠시 떠나, 성당 -가능한 비어 있을 때- 안으로 들어가서는, 맨 앞줄 좌석에 앉아 감실을 향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곳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자주보았다.

어느 날 부인이 그에게 물었다. "바로로, 당신이 여러 차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 앉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요? 당신은 묵주도, 기도서도 없잖아요 게다가 이따금씩 즐기까지 하던데... 거기서 뭘 하는 거죠? 기도 드리는 건가요?" 바로로가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전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기도문을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전부 잊어버렸어요. 제가 성당에서 무얼 하느냐고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상자 안에서 홀로 계실 감실 앞으로 가서 그분께 그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 접니다. 바로로입니다. 주님을 뵈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님 곁에 있음을 아시게 해드리려고 잠시 그곳에 앉아 있는 겁

니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드디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바로로가 성당 현관에서 모습을 감춰 버린 것이다. 어디가 아픈 걸까?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는 결국, 그가 한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인은 바로로를 찾아갔다. 그러나, 바로로의 몸은 호

스로 뒤덮여있었고, 안색은 잿빛으로 창백해있었다. 금방죽을 것만 같았다. 게다가 병의 증세도 낙관적이지 못했다. 다음날, 부인은 나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바로로가 침대에 푹푹이 앉아, 말끔하게 면도도 한 채, 생기에 찬 얼굴을 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끊임없이 기쁜 표정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확실히 그였다! "바로로, 믿어지지 않는군요. 당신은 부활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당신 모습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거죠?"

"글쎄, 모든 일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침대 발치에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생긴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 생겼었어요. 그런데 글쎄,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로야, 나다. 예수다! 너를 만나려고 왔다.' "



형제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주십시오.

번역: 윤 종식 디모데오 신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1993년 11월 16일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나를 사랑하고 찬미하는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로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성
별 된 이들인 그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대들을 내 성령이 온전하게 스며든 마음과
정신에 근거를 둔 깊은 마음의 찬미로 부릅니다.

나는 내 직무자들의 겸손한 마음에, 그들과 내가 그
들에게 맡긴 이들을 위해 성화의 큰 은총을 내립니다.
성체찬양은 그대들 모두를 위한 내 현존의 끊임없는 있
음이기여,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시간을 썬하지 말고, 성
체찬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행하십시오. 왜냐하
면 나는 그대들의 모든 희생, 특히 항구함에 대해 보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과 숭고함의 상징인 내
성체와 성혈 앞에서 겸손하게 몸을 낮추는 사람에게 한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과 타인을 위해 하루하루 사랑의 끊임없는 결실들을 거
두는 비옥한 마음에 나의 사랑의 씨를 뿌립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이 선물의 유익함을 아는 그대
들은, 자신들의 모든 잘못들, 한계들 그리고 모든*세상의
불행들을 나에게 봉헌하고 내 현존에 무릎 꿇을 때, 내
가 그대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약
하고 가엾은 그대들은 내가 내 은총과 사랑으로 그대들
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음과,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대들
을 풍성하게 하고, 또한 죄인들인 그대들을 성화시킴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인 그대들은 우리의 내적 일치와 유익함을
알고 있기에 아직도 나를 찬양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나에게 인도하십시오. 그들에게 거룩한 성체를 통해서

나를 찾는 이들을 사랑으로 해방시키는 내 성심의 비밀
들과 나를 찬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나를 찬양하기 위한 겸손의 시간과 매 순간 제대의 희생
과 성체적 일치를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나와 온전한
결합과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그대들이 성체 찬미의 신비를 알고 살아가는 것도 중
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
제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의 사랑과 성화, 그리고 내가 주는 모든 선물
을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과 믿지 않
는 모든 이들을 내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성장시키십시오. 나
는 그대들이 실행하는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을 채
워줄 것입니다. 그대들
은 내 성심의 진주들
이고, 내 성심 안에서
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 모두를
축복하고, 그대들 각자
에게 내 사랑의 표식을
해줍니다.

아멘. M

"성체께 대한 신심은 모든 신심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데
그 이유는 그 신심의 목적이 하느님 자신이기 때문입
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신심인데, 그 이유는 성체는 바로 모든 은총의 원천이시
기 때문입니다. 성체 신심은 가장 감미로운 신심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감미로우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체 성사의 교황으로 알려져 있는 성 비오 10세의 말씀



성체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지속된다.

시에나의 성체의 기적

성녀 가타리나¹⁾와 성 베르나르디노²⁾로 유명한 시에나는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로 인해 십자가 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곁에 계신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가득한 도시이다. 이곳에서 축성된 성체들을 도둑 맞았다가 찾은 일이 있었는데 그 후, 성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1. 도둑맞은 성체

1730년, 8월 성모승천 전야, 오후 5시경, 모든 사람들은 1200년 9월 14일에 공포된 법령에 따라 주교좌 성당을 향했다. 이는 18세부터 70세의 신자들이 그들의 본당 대표와 함께 그 시기에 맞는 성서의 이미지를 살려 잘 꾸민 마차 위에 백 파운드의 봉헌 초를 주교좌 성당에 있는 도시의 수호자인 성모마리아의 성화 앞에 봉헌하기 위함이다. 주교좌 성당에는 성가와 오르간 소리로 가득 찼다. 이 시간,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의 성당에 도둑이 들었다. 그들은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 안토니오 경당에 침입해서, 감실문을 강제로 열고, 성모승천 대 축일 아침에 신자들의 영성체를 위해 축성된 성체가 가득 들은 은으로 만들어진 성합을 훔쳐갔다. 다음 날 아침, 사제가 미사를 거행할 때, 감실의 문이 열려있고, 성합과 모든 축성된 성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얼마 후 성합의 덮개와 소 십자가를 중심 광장과 연결되는 Chiasso di Largo에서 발견했다. 이 일은 사람들을 굉장히 슬프게 했고 성모승천 대 축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종교재판소는 15일 아침에,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성체와 도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



보관된 기적의 성체

다. 반면에 Alessandro Zondadari 대주교는 성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2. 도둑맞은 성체들을 발견하다

그로부터 3일 후 프로벤자로의 성모 마리아의 참사회 성당 근처에서, Paolo Schiavi di Castermuzio 라는 한 신학생이, 우연히 성체를 발견했다. 미사의 성체 거양 때 이 신학생은 중앙 제대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위치한 자선함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둥근 천정의 두 기둥 아래,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동전을 넣는 틈새로, 함 내부가 보이며 그 안에서 하얗고 이상한 것이 보이는 순간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일이 떠오르며 그것이 도둑맞은

성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급히 참사회 회의방에 들어가 Girolamo Bozzegoli 신부에게 알리는 것을 미사 참석자들은 주목했다. 그는 붉은 포를 들고, 신부와 함께 돌아와서, 그 포로 함을 덮고, 양쪽에 초를 밝혔다.

3. 성체의 진위성의 확인

성당 안은 성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주교와 종교재판소의 총 판사, 프란치스코회 수사들, 그리고 대교구의 총대리 등이 성체들의 진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Bozzegli 회의방에서 그 함을 열고 두 시간 동안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가져온 축성되지 않은 제병들과 발견된 거룩한 제병들을 비교해 보았으나 '원형과 똑 같았다. 그리고 이미 성 프란치스코의 회의방 사제가 증언한 351의 숫자와 동일했다. "348개의 온전한 것들과 6개의 반쪽들을 합하니 모두 351개였다. 위원회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3일전에



“성합과 함께 도둑맞았던 성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고 결론 내렸다. 함의 먼지들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합에 다시 담아서 Provenzano 성당의 중앙 제대 감실에 보관하고 촛불을 켜놓았다. 이 성체는 시에나의 본당과 신자들에게 회개와 신앙의 열성을 갖게 했으며 성체로 살아간 카타리나 성녀의 마음의 순결과 환희를 다시 찾게 해주었다. 대주교는 8월 17일 사목교서를 통해 “도난 당했던 성체에 대한 큰 모욕을 갚기 위해 종교적인 감사의 마음을 공적인 증거로 보답하기 위한” 자선의 활동과 단식을 선포했다.

4. 시에나의 도둑맞은 성체에 대한 과학적 검사

과학에 의해 그때의 것임이 증명되고, 부패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몸의 실재 현존이 보존되어있다는 신학을 통해서도,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성체는 성모승천 전날 축성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Gioverti (1801-1852, 이탈리아의 철학자, 정치가)가 말한 것처럼, “최고의 신적인 선함과 부드러움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도교 신앙을 벗어난 비참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처음 50년 동안은 이 성체들을 꺼내서 확인한 적이 없었다. 1780년 4월 14일에 처음으로 확인하고, 1952년 6월 10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이 사이에 열 번의 확인작업이 있었는데, 1914년 6월 10일에 과학적인 검사를 했다. 이는 신학교 경당에서 행해졌는데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연구와 더불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직, 물리학적 검사를 했다. 이 성체들은 물리학의 조직적인 검사 후, 밀도와 광채, 흰색, 향기와 형태가 완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부패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시에나의 성체는 1730년에 만들어진 효모가 없는 빵의 형태를 완벽하게 보존하

고 있는 고전적 형태이고, 유기적인 재료의 보존의 자연적 법칙을 거스른 실재성의 특이한 단일한 현상이다” 라는 Siro Grimaldi 교수는 확증하고 있다. 시에나의 성체에 있어서 신자들, 사제들, 주교들, 추기경들 그리고 교황들의 목소리는 과학과 신앙은 일치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현재, 이 성체들은 223개가 있는데,

128개의 성체들은 다른 곳의 성체 신심을 위한 요청으로 주어졌거나, 검사를 하는 동안 분쇄되고 시식되어 소실되었다. 지금도 부패되지 않고 있는 이 성체의 기적을 기념하며 지속적인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수덕과 그리스도교 신심의 모든 형태는 사랑의 성사인 성체의 기적에서 요약이 된다. 그리스도의 불붙은 영혼이 경이롭게 꽃피는 곳도 이 성체를 통해서다.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단순히 머리만으로 생각하여 이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온 몸,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성체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지속된다. **M**

너희는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체험을 전해주는 좋은 선교도구입니다. 교회를 떠나 냉담 중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또는 그분들의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 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캐나다 : 이준용 콜배 (403-288-0469)
 한 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허안젤라 (017-785-3535)



'내 사제들'의 마음

스테파노 곱비신부
마리아 사제운동, 다락방 기도회 창시자

그들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 운동에 속하기 위해 어떤 외적 조건이나 법적 문서 따윈 전혀 필요 없지만 티없는 내 성심에 자신과 사제 직무를 온전히 봉헌하는 내적 행위만은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내가 요구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다만 그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73. 7. 29

언제나 내 성심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언제나 평화를 얻으리라. 네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는 도무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봉헌한 사람은 전적으로 내게 속하므로, 하루 중 어느 때도 자신을 마음대로 쓰면 안된다.

나와 함께 있어라. 무엇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내가 늘 알려 줄 테니, 그러면 네가 언제나 내 뜻대로 행동하는 셈이 된다.

너의 손을 잡아 주마, 무엇이나 너와 내가 함께하기로 하자. 너에게는 내가 마치 아기에게 첫 걸음마를 시키는 엄마 같다. 내가 너를 내 원수에게서 결정적으로 구해낸 이래, 너는 이제 사랑의 길에서 첫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다. 내가 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토록 나는 네 엄마이다. 그리고, (원수에게 넘어갈까 봐) 도무지 방심하지 않는 엄마이다. '내 운동의 사제들' 모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착하기 그지없는 엄마지만, 잠시도 마음 놓지 않을 정도로 엄중히 경계하는 엄마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사제운동에 속하기 위해 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제일차적 행위라고 하여라. 또 그들은 아기처럼 내게 의탁하면서 모든 것을 내게 바쳐야 한다. 비록 훌륭하고 성실하고 덕성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닌 것은 무엇이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방법, 온갖 공격에 대항하여 그분을 옹호하고, 복음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을 내가 그들에게 깨우쳐 주겠다.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큰 사랑도 느낄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매우 사랑하는 교황을 내 사제들의 군대가 격려하고 옹호하며 구(救)하게 되리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준비시키겠고,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 패할 줄 모르는 강자들이 되도록 해 주겠다. 그들이 온전히 내게 의탁하면, 그들에 대한 이 엄마의 그윽한 사랑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를 받게 될 것이다! M



하느님께서서는 실패는 허용하시지만 절망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더 테레사

나는 나만큼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이 필요한 이가 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때로 나는 한없이 무력하고 약한 자신을 느끼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기대할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루 24시간 내내 하느님만을 의존합니다. 만일 하루가 24시간보다 몇 시간 더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마 그 시간 역시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나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나는 그 분께 기도하는 것이 곧 그 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기도는 하나,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만 있을 뿐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지구의 얼굴 위로 떠오르는 단 하나의 목소리, 그것은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완벽한 기도는 많은 말로 엮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싶은 갈망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사랑하십시오.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커져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 분을 당신 자신으로 간직하기에 충분할 만큼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곧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곧 실패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실패는 허용하시지만 절망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분은 우리가 좀 더 어린아이 같이 천진스럽고, 겸허하게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길게 늘어진 기도를 하지 말고, 짧지만 사랑에 가득 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과 가슴에서 나온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 부릅니다. 매일 마음의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그 완전함의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대한 생명의 호흡이므로 기도 없이 기록해진다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기도를 개발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마음의 기도와 영적 독서에 의해서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단순 함에 의해 자양분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오감을 바치고 자주 우리의 기도를 살찌우는 염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 요한 비안네는 '마음의 기도 속에서 눈과 입은 닫고 가슴을 열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마음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부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심장의 용광로에서 터져 나오는 불타는 언어여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커다란 존경과 확신을 갖고 하느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너무 뒤처지거나 앞서 달려도 안됩니다. 소리치거나 침묵을 지키지 말고 열성적으로 달콤하게, 자연스럽게, 허식을 부리지 말고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느님께 찬미 드리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 마음을 온통 채우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 채워진 마음이 마치 제2의 천성과 같이 당신 자신의 마음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들어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당신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도록 매사에 그 분을 기쁘게 해드릴 일만 찾아서 하고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치 그 분 손으로 주시는 것같이 받아들이십시오. 고의로는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하고, 만일 잘못을 했을 때는 겸손하게 곧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M**

성체와 성모님의 일치

1. 성모님은 성체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은 성모님의 살에서 왔으며, 예수님의 피는 성모님의 피에서 왔기 때문이다.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에서 생겨난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고 불렀다(창세기 2:23).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모님의 태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야 말로 성모님에게 있어서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피 중의 피"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님의 몸은 마리아의 모성적 몸에서 왔으며, 예수님의 피는 마리아의 모성적 피로부터 왔다' 라고 말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체 성사를 통하여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모성(her divine Motherhood)을 연장하시며 영속하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 알베르토는 "만약 당신이 마리아와 밀접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의 젖으로 양육되십시오. 이 신성하고 순결한 생각이 당신을 하느님의 연회(宴會)에로 인도할 것이며, 거기에서 당신은 아드님의 성혈로써 당신을 양육하시는 성모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성체의 어머니이신 성모마리아

2. 성체와 성모님은 전적으로 결합되어 계시다.

성체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게서 나온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성체 성사에서 그분의 신성과 결합되신 예수님의 몸과 피 전체는 복되신 동정녀의 몸과 피에서 취해진 것이다. 루르드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벨라테마 수비루는 "영성체를 하는 것과 동굴의 성모님을 뵈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당신에게 더 큰 기

쁨을 주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참 이상한 질문이군요.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께서는 항상 함께 다니시기 때문이지요."

3. 성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체께 대한 사랑으로 인도된다.

성모님과 성체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을 성모님께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체와 성모님을 떨어뜨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성모님을 사랑하면 성체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성체를 사랑하면 성모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체 안에서 성모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성모님 안에서 성체께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드님께 대한 성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본받아 성체를 사랑해야 한다. 동시에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 안에 예수님과 전적으로 결합되어 계신 성모님의 신비로운 현존을 깨달아야 한다.

4. 성모님은 성체와 일치하여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모님과 분리하여 모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지고한 사랑의 유대(紐帶)로써, 그리고 살과 피의 유대로써 예수님과 일치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감실이 성체를 모신 장소라면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을 태중에 모신 가장 아름다운 감실이신 셈이다. "성체는 천사적 사랑의 충동을 일으키며, 영혼들 안에서 천사들의 모후께 대한 거룩하고도 본능적인 유순함을 형성해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

신의 몸으로부터의 몸을 주시며 당신의 뼈로부터의 뼈를 주신다. 성체 성사에서 성모님께서서는 이 감미롭고, 순결하고, 천상적인 음식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다." (성 알베르토)

5.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성체에 대한 신심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성모님에 관련한 유명한 성지들에서는 단지 성모님께 대한 신심뿐 아니라 성체께 대한 신심도 아울러 독려(督勵)된다. 루르드와 파티마, 그리고 로레토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그래서 때로 이 성모 성지들은 성체 성지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성녀 벨라데파가 말했듯이 예수님과 마리아께서는 '항상 함께' 다니시는 것이다.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감실 옆에 항상 계시는 성모님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 '서 계시는(요한 19:25)' 성모님께서 어떻게 감실 옆에 계시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성 알폰소 리구오리는 성체 성사 안의 예수님을 방문할 때마다 성모님의 방문도 덧붙였다. 성 요한

보스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에게 먼저 성체 성사 안의 예수님을 흠송하고, 그 다음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공경 드리도록 권고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성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배 성인은 성체 성사 안의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성모님의 현존 또한 반드시 기억하며, 그래서 최소한 성모님의 감미로운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모님께 기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성모님과 일치하도록 권고하였다.

6. 우리는 성체를 영 함으로써 성모님과 가장 잘 일치할 수 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의식하게 되는 성모님과의 지극히 밀접하고도 감미로운 유대를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고, 또 자주 영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마리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성체 성사 안의 예수님을 우리들 가슴 속에 모시는 것 입니다." (성 힐라리오) **M**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우리의 영혼은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하느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기도 방법이 성시간입니다. 이 성시간 동안 성체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신앙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세속에서 신앙으로, 마약중독자에서 사제의 길을

양하게된 체험이 담긴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3 set.
-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매월 메시지 Tape 3set.
- 요조신부님의 다섯 개의 조약들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965-6168) • 한국: 노 마리노 (010-7310-9678) • 캐나다 지역: 이 테레사 (403-288-0469)
- LA지역: 성 바오로 서원 (714-638-3855) • 평화의 모후 성물 센터 (323-730-1499)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슬라브코 비버리치 신부 프란치스코수도회
역자 김 훈 올리아노
캐나다 밴쿠버 한인 성당 평화의 모후 기도회 회장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당신 곁에서 십자가의 수난과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를 부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의 뜻에 따라 성모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수난과 고통을 완전히 받아드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도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함께 짊어지려 하오니. 저와 그들이 힘겨워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총의 힘을 주소서. 성모님의 뜻에 따라 저는 지금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의 십자가, 가족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그리고 세상의 갖가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에 본당 신자들에게 다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 본당 신자들이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 너희 본당에 가서 너희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성모님의 말씀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모님! 제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아멘. (제 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 1처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 묵상: 루가 23 : 13 - 14 : 빌라도는 대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끌고 왔지만 너희가 보는 앞에서 직접 심문을 했는데도 나는 너희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죄상도 찾지 못하였다.”

I 베드로 3, 18 :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묵상 기도: 예수님, 지금 저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당신 앞에서 있습니다. 죄 없는 당신께서 왜 사형 선고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 오시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려고, 창녀, 세리, 죄인, 병자, 마귀 들린 사람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성모님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느님을 모욕한 죄인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일을 꾸며 백성들을 선동했으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스스로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반항 없이 사형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에게 아무런 선고도 내리시지 않고, 제 죄를 들추어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제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형의 사형선고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으니 저희도 자기 십자가, 가족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그리고 세상의 갖가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저는 남을 판단하고, 이웃에 대해 나쁘게 얘기했으며, 눈 앞에 벌어지는 불의와 잘못에 대해 침묵하고, 부당하게 희생되고 박해 받는 억울한 사람을 보고도 남의 일처럼 모른 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잘못들을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께 저를 온전히 맡기오니 받아주소서. 메주고리에 십자가 산을 오르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세계 도처에 있는 성당과 가정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도 받아주소서. 주님, 저와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참다운 회개와 변화로 이끌어주소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남을 판단했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제 마음의 병균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좋아하는 형제 자매끼리 만나는 것처럼 상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주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외

면하고 암흑의 길을 걷어가는 세상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해주소서. 더 이상 멸망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없게 해 주소서. 오로지 평화와 사랑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게 하소서. 성모님! 사형 선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어느 누구에게 선고를 내리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으신 어머니! 간구하오니 저와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곁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언제나 계시옵소서.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 감사 드리며 그 뜻을 마음에 새겨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저녁, 나는 너희를 특별히 초대하여 시험에 들게 하겠다. 이 시험에서 너희가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고 지금 이 때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지 너희가 생각해 보거나 하였느냐?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죄 때문에 언제나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에게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하느님께 그 고통을 즉시 희생으로 바치라.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84. 3. 29)

(잠시 침묵 가운데 나의 모든 고통, 시련, 십자가를 하느님께 희생으로 봉헌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M

슬라브코신부님(프란치스코 수도회)은 1982년, 메주고리에의 성모님 발현을 보는 6명 증인들의 영적 지도신부였다. 전 세계의 수많은 순례자들은 그의 많은 영성적 저서들과 성모님 메시지 해설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본당의 저녁기도 프로그램을 주관 하였고 이른 아침 자주 십자가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부님은 2000년 11월 24일 오후 2시 십자가산에서 돌아 가셨다. 다음 날 2000년 11월 25일 성모님은 온 세상에 내려주신 메시지에서 "너희 형제 슬라브코가 천국에 들어와 새 삶을 시작하였다.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 중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전기불 하나 없는 깜깜한 유령의 도시

김기수 신부
 맨하튼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문위원

현수와 Paul을 데리고 장백현을 방문하기로 했다. 백두산 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을 이루고 동해로 흘러 들어 가는데, 두만강 주변의 우리 조선 민족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 - 도문, 연길, 훈춘, 용정, 화룡, 안도시 등을 통틀어 '연변 조선족 자치주' 라고 한다. 두만강을 접경한 북한 쪽의 큰 도시는 남양, 회령, 무산 등이다. '장백현'이라는 곳은 백두산 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을 이루고 우리나라 서해로 흘러 들어 가는데, 압록강 상류의 중국 쪽에 우리민족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장백현 조선족 자치주' 라고 한다. 압록강을 접경한 북한 쪽의 큰 도시는 혜산, 신의주 등 ... 인데, 장백현의 건너편 도시는 혜산시이다. 오래 전부터 한번 꼭 가보고 싶었지만, 연변지역으로 몰려오는 탈북 동포들 돕기에도 바쁘게 지냈던 나는 그곳에 가볼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두만강 쪽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 장백현 지역으로 가볼 예정을 세웠다. 연길에서 격일로 버스가 장백으로 떠나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 연길을 떠났다. 백두산령을 넘는 길이었기 때문에 험한 산길이었다. 포장도 되어있지 않은 좁은 산간 도로가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다. 눈을 치우지 않고 눈 위로 차들이 왕래해서 도로가 마치 썰매장 같은 빙판이 되었다. 그런 길을 사정없이 달리는 운전사의 기술에 감탄도 되지만, 이러다가 차가 미끄러지면 영락없이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였다. 간간이 산에서 벌목한 목재를 실은 대형 벌목차를 만나는데 좁은 도로를 다 차지해서 서로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참을 실갱이 하다 지나치곤 하였다.

안도시에 도착하니 점심때가 되어 어느 허름한 조선족 식당에 버스를 대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현수, Paul, 나는 점심을 먹지 않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점심식사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이 비좁아 들어갈 수도 없지만 밥 생각이 없었다. 버스에서 Paul과 함께 앉았던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우리를 보고 "점심 안 먹습니까?" 하고 물었다.

말소리를 들으니, 북한 사투리였다. 그래서 내가 반가운 얼굴로 북한에서 왔냐고 물으니, 북한에서 왔다고 북한의 통행증을 보여주었다. 북한에서 정식으로 중국에 올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지고 온 북한동포였다. 반가운 마음에 그 청년을 데리고 식당 건너편 상점으로 들어가 맥주 두 병을 사서 현수, Paul과 함께 한잔씩 마시고 나고 담배 몇 갑을 사주었다. 버스에 올라 그 청년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혜산시에서 태어나서 줄곧 혜산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름은 박세철, 나이는 33세이고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라고 한다. 대학교에서 동양미술을 전공하여 지금은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한다고 하였다. 중국에 온 이유는 지난해에 청년의 아버님이 남북 이산가족 만남에서 남한에 있는 삼촌(박범용)을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남한에서 온 삼촌과 사촌 형들이 한국 돈만 가지고 와서 청년의 아버님에게 전해 줄려고 했는데, 한국 돈으로는 전해줄 수가 없었다. 달리나 중국 돈으로 환전하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비슷한 처지가 되어 환전소의 돈이 다 떨어져 돈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 연길에 있는 친척의 초청으로 중국 방문을 허락 받아 연길까지 와서 한

국의 삼촌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번호를 몰라서 한국에 연락을 못하고 빈손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말을 들으니 안타깝고 불쌍하기 한이 없다. 그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새롭고 힘찬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래서 내가 한국에 연락해서 찾아 줄테니 북한으로 가지 말고 이 달 말까지 장백현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한국의 삼촌 주소를 알아서 한국의 마르셀라 자매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청년의 삼촌을 찾아서 이곳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장백현에는 밤 8시가 넘어서 도착하였다. 도착하기 전에 연길 양교수님이 소개한 장백현 종교국 남국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들을 맞이해 주었다. 우리를 특별히 배려해서 압록강가에 위치한 호텔에 숙소를 정해 주었다. 숙소에 짐을 두고 나오면서 강 건너편 혜산시를 건너다보니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전기불 하나 없는 깜깜한 암흑의 세계였다. 남국장에게 혜산시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물으니 현재 혜산시의 인구가 56만명 이라고 한다. 인구 56만이나 되는 큰 도시가 전기불 하나 없는 깜깜한 유령의 도시 같았다. 조선족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 숙소에 들어와 자고, 다음 날 남국장께서 7시 반에 아침식사를 함께 하려고 오겠다고 해서 6시 30분에 밖으로 나와 강 건너 혜산시를 바라보았다. 몇 발자국이면 건너갈 수 있는 지척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가깝다. 현수는 벌써 나와서 비디오를 찍고 있었다.

혜산시는 새벽 6시부터 일터로 가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모두가 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고 간간이 자전거를 탄 사람들, 구루마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지나간다. 인구 56만이라는 도시가 버스한대, 승용차 한 대, 심지어 화물 트럭 한 대 지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강가에 경비 초소가 약 200미터 간격으로 서 있는 것이 보이고 군인 두 세 명씩 강가를 경비하는 것도 보인다. 잠깐 서 있었는데도 코끝이 얼어오고 손가락 끝이 마비가 될 정도로 춥다. 아침에 한국의 마르셀라 자매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제 부탁한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 박범용씨가 그곳에 살기는 했는데, 얼마 전에 이사를 가서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구청이 문을 닫아 월요일에 구청에 의뢰해서 이사 간 곳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만큼 찾은 것만도 큰 성과이다. 바쁜 중에도 이런 일들을 자신의 일같이 한국에서 신속하게 도와주는 마르셀라 자매님의 배려가 참으로 고맙게 생각되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조그만 전화기 한대만으로도 북한과 중국, 한국을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 몇 명만 모이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새롭고 힘찬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바로 장백현에서 마음조리며 기다리고 있는 박세철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하며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다짐하였다.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자기에게 부탁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지금은 필요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7시 반에 남국장이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남국장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서 나는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

나는 탈북 동포들을 돕고 있는 사람인데, 이곳에 탈북 동포들이 많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움을 줄려고 왔다고 말했다. 남국장은, 불법이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곳에 탈북자들이 많이 와서 도움을 많이 받고 갔다고 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경비도 강화되고 중국의 법이 엄해져서 탈북자들이 와도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가겠다고 오늘 하루 장백현시 어디 어디를 구경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여기는 국경이니 너무 가까이 가거나,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을 찍을 때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른 곳은 그만두고 그냥 국경을 둘러보기로 했다. **M**

메주고리예가 기도와 신앙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전 교회와의 내적 일치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라칭거 추기경 / 베네딕토 16세 교황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신앙 성 장관을 지내던 추기경 (라칭거) 시절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명으로 메주고리예를 방문 하셨다. 1986년 라칭거 추기경 위원회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지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특별 임무를 띠고 메주고리예 발현

을 반대하고 있었던 그 지역 주교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메주고리예 본당이 속해 있는 모스타 교구의 교구장인 파바오 자니치주교는 이미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사건을 반대하며 메주고리예를 지키는 프란치스칸 수도회와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면서 성모 발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라칭거 추기경의 메주고리예 방문 후에도 자니치 주교는 메주고리예 성모 발현사건을 계속 부정하며 근절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1986년 5월 라칭거 추기경은 자니치 주교가 구성한 이 조사위원회를 해체 시키고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 차원에서 새로운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즉 바티칸은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을 반대하는 자니치 주교의 권한을 박탈하고 이 발현사건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더 신중하게 조사하도록 위원

회를 구성했으며 발현의 사실 여부를 미래의 판단에 맡기도록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칭거 추기경은 1991년 8월 28일 오스트리아에서 메주고리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희망을 표현하였다. “메주고리예가 기도와 신앙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전 교회와의 내적 일치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91년 9월 라칭거 추기경은 ‘바티칸은 메주고리예의 발현에 대하여 열려 있음’ 을 공표하였다. 새로운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요한 바오로 2세와 같이 메주고리예를 보호 할 것으로 보인다.

라칭거 조사위원회의 그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교황은 성모 발현의 급증을 시대적 증표로 보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교회에서 인준한 루르드나 파티마와 같은 성모 발현지는 마지막 세기에 오히려 교회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날들의 발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살아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메주고리예 성모 발현지에 대해서 조사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이 발현의 사실여부를 지금 판단할 단계는 아니며 성모 발현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증표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M

-Spirit Daily 에서 발췌-



메주고리에 순례에 대한 바티칸 회신

현재 교회의 조사가 진행 중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성은 메주고리에 순례가 허락된 것임을 인정한다.



신앙교리성 Citta del Vaticano, Palazzo del S. Ufficio
Pr. No 154/81-06419 1998년 5월 26일

존경하는 길베 오브리 몬시뇰, 썬드니 델라 호위농의 주교님께.

주교님께서 1998년 1월 1일 본 성에 보내신 편지에서, 본 신앙교리성에 메주고리에의 성모 발현과 사적인 순례, 그리고 그곳으로 순례를 가는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인 관리차원에 대하여 교황청의 입장과 해당 교구인 모스타 주교의 입장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은 주교님께서 제시하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싶은 주된 사항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현상에 대하여 교황청이 초심 법

원으로 나서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리치 주교님의 반대 의견은 다만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메주고리에로의 순례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끌어진 것이라면, 현재 교회의 조사가 요구되어 아직까지 진행 중이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성은 그것이 (순례가) 허락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본 성에 제출해 주신 것들 중 최소한의 주요 질문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주교님께서 제가 올리는 의견을 살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M

대주교 타르치시오 베르토 (교리성 장관, 의장 라칭거 추기경)

메주고리에의 순례단에 성직자가 함께 하는 것을 교회가 막아서는 안됩니다.

1996년 6월초 부터 많은 언론기관들은 바티칸이 메주고리에로의 순례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바티칸의 대변인 요아킨 나바로-발스는 즉각 이것을 부인하는 기사를 발표하였다. “가톨릭 신자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은 영신적인 보호와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평신도가 조직한 메주고리에로의 순례단에 성직자가 함께 하는 것을 교회가 막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에 관한 바티칸의 입장에 대하여 잘못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교황청의 대변인은 바티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 바티칸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메주고리에에 가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어떤 주교는 그들의 교구나 관구에 있는 신자들에게 성모님 발현지로의 공식적인 순례단을 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티칸의 대변인이 말하기를 “발현이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누구나 원한다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은 영신적인 보호와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평신도가 조직한 메주고리에로의 순례단에 성직자가 함께 하는 것을 교회가 막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가톨릭 신자들과 성직자가 함께 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자가 “교회나 바티칸이 메주고리에에 대해 ‘아니오’ 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묻자 바티칸의 대변인 요아킨 나바로-발스는 “아닙니다. 바티칸은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M

바티칸의 대변인 요아킨 나바로-발스와 가톨릭뉴스 서비스의 인터뷰

현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바티칸의 신앙교리성의 (라칭거 추기경) 의장 시절에 메주고리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들이며 일부 기사는 이미 지난 호에 게재되었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성모님께서 선택하신 6명의 발현 목격자들

성모님 발현 24주년(1981~2005)

옛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마을인 메주고리에서 1981년 이후 매일 성모님이 발현하시어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왔다." 고 하시며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에의 6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발현하시어 회개를 위한 메시지와 평화의 시기에 일어날 10가지의 비밀을 주셨다. "10가지의 비밀을 받은 미리안나가 평화의 시기에 대한 비밀이 실현 되기 전에 신부(Pero Ljubic)에게 알리면 그 후 신부(Pero Ljubic)는 단식하고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지에 대하여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게 된다. 미리안나는 첫 비밀이 밝혀지면 곧 나머지 비밀도 실현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3번의 경고 후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산에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표징을 발현산에 주신다고 하셨다. 성모님께서는 "물질만능주의가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 하루빨리 회개하여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고 말씀 하신다.



비스카
(Vicka Ivankovic)

비스카가 성모님의 발현을 처음 보았을 때는 17살 이었다. 그녀는 1964년 9월 3일 비야코비치에서 태어났다.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처음 발현하신 것은 1981년 6월 24일이었다. 그녀는 성모님이 주시는 10가지의 비밀 중에 현재 9개의 비밀을 받았다. 성모님께서서는 비스카와 야콥에게 천국과 연옥, 지옥을 직접 보여 주셨으며 비스카에게 죄인들의 회개와 병자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다. 성모님께서서는 비스카에게 발현하실 때 순례자들이 보내온 모든 기도지향들을 축복해주신다고 한다. 비스카는 평화가 가득한 미소를 띄우며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순례자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해주며 이렇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성모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잃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선 우리를 가까이 계시며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아드님께 가도록 도와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메주고리에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비스카에게 당신의 생애를 보여 주시며 기록하게 하셨

는데 성모님이 허락하실 때 공개하게 된다고 한다.



미리안나
(Mirjana Dregicevic)

미리안나는 1965년 3월 18일에 사라예보에서 태어났으며 목격자들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 메주고리에서 6월 24일 복되신 어머니를 두 번째로 본 사람이다. 그 당시 그녀의 가족은 사라예보에 살고 있었는데 비야코비치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여름을 보내려고 메주고리에에 왔을 때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다. 미리안나는 6명의 목격 증인 중에 10가지의 비밀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다. 그녀는 1981년 6월 24일부터 1982년 12월 25일까지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았는데 마지막 날 미리안나는 성모님으로부터 10번째 비밀을 받았다. 성모님께서서는 그 후부터 3월 18일에 그녀의 생일에 한번만 나타나셨는데, 미리안나가 이 세상이 평화의 시기 때 받을 어려움을 예언한 10가지의 비밀을 알고 몹시 힘들어하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며 미리안나를 위로하시고자 1987년 8월 2일부터 매월 2일 발현하고 계신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발현이었으나 1997년 2월 2일부터 미리안나의 매월 발현 때 체나콜로 공동체

에서 순례자들도 함께 성모님의 발현에 참가하고 있다. 성모님께서는 그 시간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Marko Sold와 결혼하여 메주고리에 살며 있다. 미리 안나는 10가지의 비밀에 대해 묻는 순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께 자신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래의 시간에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리아
(Marija Pavlovic)

마리아는 1965년 4월 1일에 비야코비치에서 태어났다. 그녀에게는 3형제와 2자매가 있다. 발현이 처음 시작 되었을 때 성모님의 발현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그녀의 여동생 밀카였다. 그 다음날 동생 대신 마리아가 그 장소에 가면서 목격증인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성모님께로부터 9가지의 비밀을 받았으며 아직도 매일 발현을 보고 있다. 마리아는 매월 25일에 온 세상에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마리아는 결혼하여 이태리에서 살고 있으나 자주 메주고리에 머물고 있다. "성모님은 당신을 평화의 모후라고 하시며 자신들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겸손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삶 안에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변화된 삶을 기뻐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모든 축복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반카
(Ivanka Ivankovic)

이반카는 성모님의 발현을 본 4 명의 소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리며 1966년 7월 21일 비야코비치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인 Jagoda는 1981년 5월에 세상을 떠났다. 성모님의 발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반카는 그녀의 어머니

에 대해 물어 보았다. 성모님은 이반카에게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시고, 어느 날은 그녀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시어 비스카와 대화를 나누게 하셨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잘 모시도록" 당부하셨다고 한다. 이반카는 성모님의 발현을 1981년 6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985년 5월 7일까지 보았다. 그날 성모님께서는 이반카에게 마지막 10번째의 비밀을 주셨으며 그 후로는 매년 발현 기념일인 6월 25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반카는 결혼하여 메주고리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한 가족으로 일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미사 때에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청소년들에게 몇 가지 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과 진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정말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메주고리에서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살면서 가능한 빨리 회심하고 하느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반
(Ivan Dragicevic)

이반은 1965년 5월 25일에 비야코비치에서 태어났다. 세 동생들이 있으며 목격자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내성적이다. 늘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지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강한 어조로 자신이 본 성모님과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1981년 8월 말에 드브로브니에 있는 소신학교에 들어가 사제가 되기를 원했으나 자신의 길이 아님을 알았다. 이반은 결혼하여 미국 보스톤과 메주고리를 오가며 살고 있고 9가지의 비밀을 받았으며 지금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다. 이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모님의 메시지와 체험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현 시대의 가정은 물질만능주의 때문에 병들어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변명이고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교회가 힘을 잃어 버립니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큰 위협과 고통이 있을 뿐

입니다. 사탄은 영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회는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는 보호의 벽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단식 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참된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야콥
(Jakov Colo)

야콥은 목격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리며 1971년 3월 6일에 비야코비치에서 태어났다. 야콥이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을 때 나이는 10살이었다. 야콥의 나이 여덟 살 때,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그때부터 야콥의 어머니인 Jaca는 알중독자가 되었으며

4년 후인 1983년 9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은 야콥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주었다. 성모님께서서는 야콥에게 "어머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야콥은 결혼하여 메주고리에 살고 있다. 1998년

9월 12일 그날은 성모님께서 야콥에게 발현하신 마지막 날이었다. 성모님께서서는 오전 11시 15분 조금은 슬픈 얼굴로 야콥에게 30분 동안 발현하시어 10번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오늘이 내가 너에게 오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 후로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에 너를 찾아오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길을 가거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 가거라." 하고 말씀 하셨다. 야콥은 물질주의에 젖어서 병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의 가정이 다른 이들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면 그것을 감사 드리고 그 마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단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단식한다면 그 단식이 우리를 돌같이 더 굳어 버리게 해서 단식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성모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M**

남그레고리오 형제님께,

주님과 성모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는 오 루시아입니다. 2년 전부터 노 안나 자매님을 통하여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받고 읽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모님의 부르심에

'네' 라는 대답을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나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리라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호소하심에...) 이제야 비로서 마음을 정하고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읽으며 뜨거운 마음의 감동과 죄의 회개와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남편 에게도 성모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어 가족들의 신앙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메시지 안에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 성당에도 소식지를 전하고 싶은 신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원회원이 되어서 제 이웃의 형제자매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30부 정도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이지만 형편이 되는대로 후원회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딸과 온 가족이 (함께는 힘들겠지만...) 메주고리를 다녀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성모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메주고리를 다녀 오지는 못했어도 성모님의 메시지와 말씀 안에서 (성모님께서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살아 갈 수 있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니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심과 인도해주심을 체험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 형제님, 성모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수고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평화!

2005년 4월 11일 오 루시아 드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것도 유다스를 물질로 유혹했기 때문이다.

문호영 신부 (예수의 성모관상 수도회 지도신부)

① 첫째, 물질로 유혹하는 것이다.

나의 충성스런 부하들아, 이 세상을 보라, 온통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질로 유혹하는 방법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방법 중에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둔 방법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도 바로 유다스를 물질로 유혹했기 때문이었다. 요즘에 와서는 더욱 사람들이 물질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하기가 더욱 쉽게 되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가난을 약속한 많은 수도자와 성직자들도 이것으로 유혹하면 쉽게 넘어가고 있다. 이만큼 이 물질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옛날 사람들이 아직 먹을 것이 충분치 못했을 때는 먹을 것을 위해 애를 썼고, 우리는 주로 먹을 것을 미끼로 썼지만 이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는 별로 마음 쓰지 않는다. (물론 지금도 먹는 것을 미끼로 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꽤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보다 편하고 안락하게 지내기 위해, 그리고 물질로 자신들의 허영심과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에 앞서 물질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소위 돈은 이제, 단순히 물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힘이고, 쾌락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원천이며 허영심을 마음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욱 더 악을 써서라도 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야 한다. 물질로 유혹할 때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 이것은 너의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자꾸 말해 주는 것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산다.” 라고 하는 성서 말씀은 그저 성서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 자꾸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질이 없거나 부족했을 때의 경험, 물질이 풍부했을 때의 경험을 자꾸 상기시키고 ‘좀 더 편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자꾸 보여주어라. “자 이 세상을 보아라. 모두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의 사명은 그것들을 모으고 축적하는데 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다.

② 둘째,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에 대해 말하겠다.

옛날에 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쾌락들은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새로운 방법을 자꾸 모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쾌락 중에 역시 세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거의 성공을 거둔 부분이 성적인 쾌락이다. 그리고 역시 이것은 물질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끝나는 날 까지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법은 계속 유효하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성적인 쾌락으로 유도하거나 인도하면 대부분 넘어간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사람들은 이제 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게까지 되었다. 이런 사람들 안에 우리는 이제 아주 쉽게 그것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는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그래도 이 분야로 성직자 수도자들도 유혹할 수 있고 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성직자, 수도자들, 봉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M**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구나.

이태리에서는 사제직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제직은 지켜온 생활이었기에 미련 없이 옷을 벗고 떠났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바로 일거리를 찾았고 아름다운 여인도 만났다. 그녀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알콜 중독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율법을 엄수하는 유대인으로 키웠기 때문에 전직 신부와 결혼한다는 것은 생각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매사를 그녀와 함께 하면서 되도록이면 지난 과거 일은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가 달라졌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게 되었고 그녀에게 의존하려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슴이 끓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매일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달렸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먹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졌다. 태양도, 하늘도,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산들도 이제는 싫었다.

어느 날, 여인은 그를 위해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를 신청 하였다. 이태리에서는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가졌지 생각하며... 그러나 그는 신앙심이 깊고 나이 많은 여자들이 가득 타고 있는 버스를 함께 타고 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빌려 타고 온 차로 메주고리에 도착하여 성 야고보성당 앞에 주차 시키고 차문을 막 잠그려 할 때, 듄직하게 생긴 크로아치아 수녀 하나가 갑자기 그를 붙들더니 본당 사제관으로 끌고 갔다. 누군가가 “발현이 막 시작 되려고 해요.” 하고 말했다. 얼마 후

그는 삼십 명쯤 되는 사람들로 가득한 작은 방에서 곳곳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목주의 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그리고 목주 알 열 개가 끝날 때마다 아베아베를 노래했다. 그러나 그는 목주가 없어서 그저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 젊은이가 앞으로 나오더니 곧 무아지경이 시작되며 깊은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증인들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높은 벽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어떤 목표물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마리아의 흑갈색 눈동자는 까만 허공을 꿰뚫고 있었으며 이반과 야콥 출로의 눈은 텅 빈 허공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때 그는 갑자기 슬픔에 찬 여인의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중얼거리는 자신의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못된 신부예요.” “내 아들이, 너는 어렸을 때의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너는 너의 어렸을 때의 믿음을 잊어 버렸구나. 너의 봉헌된 손을 바라보아라. 그 손에서 흐르는 피가 보이느냐? 그것은 네가 흘린 피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흘린 피란다. 네가 네 손으로 생명 아닌 죽음을 바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회개하여라. 너무 늦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회개하여라. 너무 늦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시며 흘러 내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떻게 회개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그는 갑자기 그의 온 생애가 그의 눈 앞에 순간적으로 펼쳐지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어린 시절,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 나날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혼자서 숨어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아직도 이기심에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자신이 소홀히 대해왔던 모든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신을 보았다. 그는 무서워서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괴로움 때문에 그는 목이 막혔다. 그것은 너무나 심한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기에 이제는 그가 숨을 곳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이 보이고 그는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갈 곳이라곤 없었다. 그 장면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난폭한 반항을 하며 자신이 태어나게 해 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닌 삶을 그는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선택해주신 길이 싫어서 따르고 싶지 않아서 거부했다. 내면에서는 끓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으나 오히려 그 분노에서 위안을 받았다. 어떤 대가가 주어져도 그건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난 분노는 그의 친구가 되어 저주와 증오로 들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작은 그 방에서 뛰쳐나가려 할 때, 그는 갑자기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 붙은 듯이 서버리고 말았다.

그 앞에 성모님이 계셨던 것이다. 두려우면서도 권위 있게 보이는 현존하심의 빛이 그를 성모님의 얼굴과 눈을 마주보게 해 주었다. 그 두 눈에서 발산되는 애절한 사랑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증오심들

을 태워버렸다. 그 순간 그는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새카맣게 그을린 절망’의 냄새를 맡았다. 성모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치 그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머니의 자장가를 연상케 해주었다. “네가 전에는 내 아들을 사랑하였고 헌신하였다. 지금 나는 너에게 천국을 줄 수 없구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시간을 줄 수는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선택하여라.”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이 일그러진 그의 삶을 껴안아 주었을 때 그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깊고 참된 평화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나는 너의 참된 엄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해 왔단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단다.” 그 다음 순간 그가 기억한 것은 몇몇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이 얘기하느라고 분주한 사제관에서 부시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뿐이다. “오, 깨어나셨군요. 괜찮습니까?” 고백성사를 보러 사제관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가슴에는 자신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성모님의 말씀이 맴돌았을 뿐이다. **M**

(Visions of The Children /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예의 성모마리아에서 발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6년 전의 일이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의 장성한 세 아이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늦둥이 막내 크리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항상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사시던 곳인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그곳에서 그분들의 체취를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메주고리에 순례 안



내를 보는 순간 어떤 힘이 나를 강하게 이끄심을 느꼈다. 직감적으로 ‘내가 갈 곳이 여기구나’ 하면서 그 날 부터 순례 준비를 위해 54일 묵주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순례를 가고자 했을 때 메주고리에의 인근지역인 코소보에서는 내란으로 인한 전쟁이 한창이었다. 아내와 아이들도 한결같이 그곳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왜 그런지 나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않았다. 성모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강력한 이끄심을 느끼니 전쟁 중이라는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느껴졌다. 나는 “성지 순례를 하다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농담을 하며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메주고리에 순례를 떠나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변을 거쳐 메주고리에에 도착하였다. 마치 한국의 자그마한 농촌 같은 시골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어머니의 품속처럼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야고보 본당에서의 저녁 예절과 더불어 십자가산과 발현 산을 오르며 지나온 시간 속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지내는 메주고리에에서의 생

활이 더 없이 행복했었다. 순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메주고리에에서 느꼈던 평화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날이 갈수록 그곳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 가기만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이 나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가 가면 슬며시 일어나서 나를 피하고 있었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 미카엘라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니 내가

앉으나 서나 메주고리에 성모님 이야기만 하니 ‘아빠가 이상해졌다’고 하며 듣기 싫어서 그러한다고 했다. 넷이나 되는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묵주기도와 성모님 이야기만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도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밭을 갈던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 할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한 심정임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도 메주고리에를 가보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빠른 시일 안에 가보라고 말했다. 미카엘라는 성모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왜 그 먼 곳까지 가야 하느냐고 하며 차라리 다른 곳에 가지 그곳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그때부터 성모님께서 아내를 메주고리로 불러주시기를 지향하며 54일 묵주기도와 33일 봉헌을 시작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성모님께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기도용

내 마음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심정이었다



답을 주셨다. 아침 식사 중에 미카엘라는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며 지난밤에 당장 메주고리예를 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결국 밤 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 메주고리예 순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나는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메주고리예로 불러 주시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후 미카엘라가 순례를 떠나는 날 아침까지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으나 어떤 일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고 미카엘라가 순례 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순례를 떠난 미카엘라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평화와 기쁨의 눈물을 맘껏 흘리고 울보라는 별명을 얻어서 돌아왔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메주고리예로 갔다. 그 후 아내와 나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알리고자 평화의 모후 센터를 설립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메주고리예 소식지를 있는데 한국어는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무 경험도 없지만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국어 소식지를 만들고자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웠다. 2001년 1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가 탄생되었다. 평신도가 하는 일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후원회원들의 보내주시는 십시일반 후원금과 순례의 이익금으로 지금까지 28호까지 발행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선교회에서 매 호마다 11,000부씩을 인쇄하여 판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 지역과 캐나다, 한국의 1,300여 곳의 가정과 90여 군데의 공동체와 공소, 그리고 원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고 있다. 오늘의 선교회는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의 결실이고 열매이다. 다시 한번 각 본당의 봉사자님들과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메주고리예 성모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변화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

다. 그 전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며 많은 돈을 벌어도 물질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좌우 되는 일이 많았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혀 불편한 것 없이 오히려 더 풍족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부족한 것도 없게 되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드릴뿐이다. 처음에 우리 부부가 성모님 일에 전념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 상황 중이던 사업을 정리할 때였다. 공부를 잘하던 세 아이들에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이 원하던 진로가 바뀌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모두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때는 부모로서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며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오는 어려움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도와 주고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을 볼 때에 부모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은 세 아이 모두 메주고리예를 다녀 온 후 엄마와 아빠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으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세 아이들 모두 메주고리예를 이야기 할 때면 "그곳을 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다. 메주고리예는 한번 다녀오는 곳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충전해주시는 곳"이라고 말한다.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과 예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며 그분의 도구로써 사용해 주심에 오히려 감사드릴 뿐이다. **M**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신다."

양 미카엘라
방배동 성당

+ 찬미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모님, 성 요셉이여, 저와 함께 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내가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는 것을 들은 것은 1987년 1월 어느 피정의 집 수녀님을 통해서였다. 너무나 놀라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때 나는 골수이식 외에 치료방법이 전혀 없는 난치병 선고를 받고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회개가 되지 않아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성모님께 기도하고 있던 중 이었다. 발현하신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곳에 가면 성모님께서 회개시켜 주신다는 말에 나를 불러 달라고 간절히 기도 드렸다. 그때 나는 갑자기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고통에 시달리며 무척 힘들었다. 매일 새벽 미사 때마다 차에서 내려 한 발짝만 걸어도 고통이 심해 주저 앉고 말았고, 몇 발자국 앞에 있는 성모상까지 가기도 힘이 들었다. 성당에 들어가면 통증 때문에 신부님 얼굴이 뿌옇게 보이고 강론도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성체만 모시면 신부님의 얼굴이 보이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집에 돌아 오면 아이들 도시락도 싸고 아침밥을 먹여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그런 후 나는 다시 통증에 시달리며 "성모님, 제가 아이들을 위해 밥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집에 올 때쯤 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이 올라와 저녁 준비를 하는 날들이 계속 되었다. 그런데 순례를 떠나기 3일전, 병원에 갔더니 주치의가 갑자기 바뀌었다. 의사는 내 피수치를 보자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혼자 왔냐고 하면서 수혈을 하고 집에 가면 꼼짝 말고 누워만 있으라고 하였다. 3일 후 성지순례를 간다고 했더니 정신 나간 사람 보듯이 쳐다보며 "당신은 비행기 타자마자 죽으려고 그러냐? 잔소리 말고 집에 가서 꼼짝 말고 누워있으라" 고 했다. 진찰실을 나와 서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수녀님이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사정

을 말씀 드렸다. 수녀님은 직접 선생님을 만나고 나오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꼭 메주고리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물으셨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와서 수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이다" 고 말하시는 수녀님의 얼굴은 마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하는 표정이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불러 주셔야 가는 곳인데 나도 어머님께서 불러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에 성모님께 나를 완전히 의탁하고 메주고리에 가보겠다는 용기가 생겨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고 앉으면 누울 수도 없어서 "어머님, 짐을 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 드렸다. 그때 갑자기 아이들의 고모가 오더니 짐을 챙겨주었다. "아! 성모님께서 도와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 드렸다. 드디어 순례를 떠나는 날, 새벽미사를 가는데 어제보다 고통이 더 심해졌다. 100명이 가는 순례인데 내가 산소마스크를 하는 일이 생기면 함께 가는 순례 객들도 편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5개월 동안 가슴 설레이며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례를 가고 싶은 제 욕심을 어머님께 바칩니다." 하고 마음을 비웠다. 그런데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들던 내 몸이 마치 날개가 달린 듯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다. '천사를 시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너를 이끌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도 몸도 날아서 비행장으로 향했다.

파티마에서 발현 80주년 전야와 기념 미사를 드린 다음 날, 소성당에서 새벽 4시 30분 에 한국어 미사를 마치고 나오며 "어머님, 이곳에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쭙어 보았다. 그때 한 폴란드 아빠가 한 팔에 어린

성모님께서서는 매일 당신 앞에만 머물러 있던 나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계로 인도해주셨다.



아이를 안고서 무릎안대를 하고 기어서 목주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님, 저는 무릎안대도 없고 아마 무릎 기도하다가 혼자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요.” 두려운 마음에 울먹이며 내 힘으로는 기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성모님을 바라보며 의탁하고 무릎기도를 시작했다. 얼마 후 태양은 떠오르고 그 행복감이란 이 지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었다.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다. 메주고리예를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달빛이 비치는 아드리아해를 바라보며 성모님을 뵈 수 있다는 설레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 3시에 메주고리예에 도착해서 또 다시 “어머님, 저를 이곳에 오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니 매일 발현 산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즉시 갔다. 다음 날부터 매일 혼자 발현 산을 올라가며 사랑의 하느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 이슬을 머금고 막 피어나는 꽃들이 하느님을 바라보듯 태양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며, 들꽃 하나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나도 그 들꽃들처럼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 드렸다. 마지막 날 떠나기가 아쉬워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영국여자 2명이 와서 지도신부님을 모셔갔다. 그 여자들은 십자가 산을 가리키며 “저 십자가가 불 타고 있다. 너희들이 성모님께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서 (모든 신자들이 한복을 입었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당신의 현존하심을 보여 주시는 것이다. 나는 일곱 번째 메주고리예에 왔는데 너희들 덕분에 이것을 보게 되었다.” 고 우리를 얼싸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얼마 후 1시가 넘은 새벽에 오늘은 예수님과 성모님, 나 이렇게 셋만 있고 싶어서 발현 산으로 향했다. 주변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보름달 불빛으로 대낮같이 밝아 손전등이 필요 없었다. 십자가 산 쪽을 바라보니 십자가가 성령의 불꽃 모양으로 타오르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어, 정말 십자가가 불타고 있네. 희안하다???” 고 생각했다. 목주기도를 하며 산을 올라

갈 때는 등 뒤 십자가에서 타오르는 불길의 따스함이 내 온 몸을 감싸는 듯 했다. 고통의 신비를 마쳤을 때 다른 순례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를 얼싸안고 십자가 산을 가리키며 “저쪽을 봐라. 책에서만 봤던 십자가가 지금 불타고 있다.” 고 기뻐했다.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에서 영광의 신비를 바치며 십자가 산을 바라보니 십자가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온 지구를 감싸시는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는 것 같았다. 새벽 3시쯤 기도를 마치고 발현 산을 내려오니 어두워진 길 어디선가 큰 개 3마리가 나타나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나는 “너희들도 성모님 사랑하지? 나도 성모님 사랑하는데 난 혼자 집에 찾아 갈 수 있으니깐 너희들도 집에 가!” 했더니 그 중에 하얀 개 한 마리만 앞서가기 시작했고 내가 그 개를 따라 야고보 성당에 도착하자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14박 15일 동안의 파티마, 로마, 메주고리예, 루르드 순례가 나에게 마지막 순례라는 생각에 잠도 거의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성모님께 의탁하며 다녔다. 떠나기 전의 내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분명히 성체의 힘이었고 완전한 성모님의 도우심이기에 그 분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린다. 그 후 나는 3년간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내가 겪은 고통들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보속으로 바치는 기도가 되었으며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셨구나!” 하는 체험으로 (천만 분의 일도 안되지만) 그 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교과서가 되었다. 순례 후 성모님께서서는 매일 당신 앞에만 머물러 있던 나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계로 인도해주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가장 빠르고 완전한 길로 예수님께 인도해 주신다.” 라는 몽포르도의 성루도비꼬 성인의 말씀이 떠오른다.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나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산다. 하지만 즉시 용서를 청하며 그 분의 자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 M



I Call You To Renew Prayer In Your Families!

**Message of
May 25, 2005**

" Dear children! Anew I call you to live my messages in humility. Especially witness them now when we are approaching the anniversary of my apparitions. Little children, be a sign to those who are far from God and His love. I am with you and bless you all with my motherly blessing.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In her message, the Virgin Mary speaks to the families. With a maternal heart, she is inviting to the revival of prayer in our families. Mary, our Mother, knows well that family is threatened in a special way. The family is the sanctuary of each person, in which it grows, is educated, and receives in the heart all the values that parents should transmit to their children.

Nowadays, much is spoken about so many crises, and in a very special way of the crisis of the family. The family is attacked on all sides by evil, which wants to discourage and destroy communion, harmony and peace of the family. The families are in crisis in a particular way, because family prayer disappeared in so many families. Gospa does not make a diagnostic of a disease of the contemporary family, but in this message, she is giving the therapy, how to heal, how to renew and revive our families. She brings us back to the source of life, she is putting in our hands the

means: prayer and reading of the Scriptures, of the Word of God. By these means, the Holy Spirit - in the place of the spirit of the world - will enter into our families and will bring blessing, peace and communion.

As a Mother, Gospa does not invent new means but gives to her children the simplest and healthiest verified food. This spiritual food and these means were tested in the Christian tradition of the Church. Generations ate of it and lived their faith of it, were inspired and have remained on the way of God, the one that leads to life, not just an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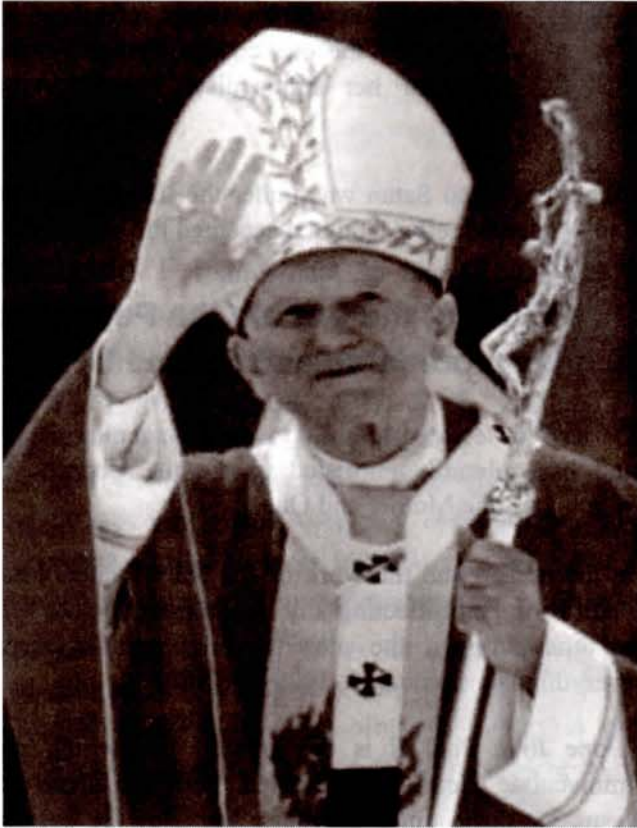
Gospa says: *By prayer and reading of Sacred Scripture, may the Holy Spirit, who will renew you, enter into your families.* To pray with the Bible means that we are on the best way, on the surest base, on the best source of prayer. Here, I meet the Word of God through which He wants to say something to me. The Word of God in the Scriptures is not the text of a novel or of just any book. It is not pronounced or written by just anyone. It is the language of God who, by this text, can be heard and which resounds through all times...

When I listen to what the Lord is telling me, I will be able to speak, to give witness and to live my faith. Then, we will be able also to lead others and to teach them in faith, especially those which the Lord put on our way.

By this message, the parents in particular are invited to become not only those who put the children into the world, but most of all those who unceasingly give to them birth for faith and in faith... God will hear you. He takes seriously each one of your prayers made seriously. The prayer in which we believe can be taken seriously by God, and it can be answered.

Fra Ljubo Kurtovic

Today, the Church, the world, and we as individuals mourn the loss of a great pope, John Paul II. He is now among the saints in Heaven - with Our Blessed

"The Masterpiece Formed In My Immaculate Heart"**(May 18, 1920 April 2, 2005)**

Mother to whom he had been consecrated from the beginning of his priesthood and to whom he entrusted his papacy.

"Totus Tu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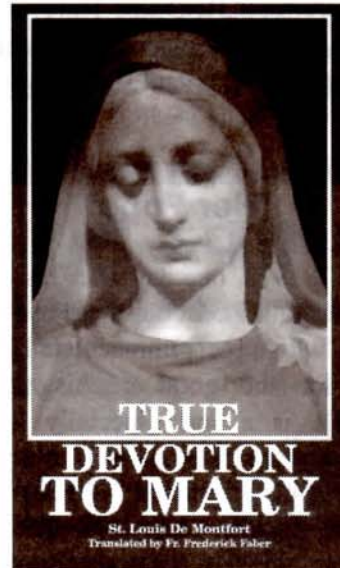
On October 13, 2000, the anniversary of the miracle of Fatima, the Pope addressed the participants in the 8th Mariological Colloquium... The meeting was the occasion of an official petition to the Pope to have him declare Louis Marie Grignon de Montfort (1673-1716) a doctor of the Church.

Pope John Paul II spoke of his youth and how, during the dark years of the Nazi occupation of Poland, he came to discover the important role of Mary in his life.

He writes,

"When I was working as a clandestine seminarian at the Solvay factory in Krakow, my spiritual director

advised me to meditate on the True Devotion to the Blessed Virgin. Many times and with great spiritual profit I read and reread the Mother of Christ to the Trinitarian mystery, Montfort helped me to understand that the Virgin belongs to the plan of salvation, by the Father's will, as the Mother of the incarnate Word, who was conceived by her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Mary's every intervention in the work of the regeneration of the faithful is not in competition with Christ, but derives from him and is at his service. Mary's action in the plan of salvation is always Christocentric, that is, it is directly related to mediation that takes place in Christ. I then realized that I could not exclude the Mother of the Lord from my life without disregarding the will of God-the-Trinity, who wanted to "begin and complete" the great mysteries of salvation history with the responsible and faithful collaboration of the humble Handmaid of Nazareth... **when the believer accepts Mary into his life in Christ and the Spirit, he is brought into the very heart of the Trinitarian mystery.**" (Pope John Paul II, October 13, 2000)



His strong devotion to the Blessed Virgin Mary, then, grew out of his reading the Treatise of True Devotion to the Blessed Virgin by St. Louis de Montfort, and it

He Has Consecrated Himself to My Immaculate Heart

is from this saint that he adopted the personal motto that he subsequently made his own when he was elected Pope - "Totus Tuus" (Latin for "All yours", meaning Mary).

Throughout his pontificate, he continuously invoked the intercession of the holy Mother of God. In his Apostolic Letter, "Rosarium Virginis Mariae," which was released on October 16, 2002,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fth year of his Pontificate, he wrote,

"The simple prayer of the Rosary marks the rhythm of human life...

I set the first year of my Pontificate within the daily rhythm of the Rosary. Today, as I begin the twenty-fifth year of my service as the Successor of Peter, I wish to do the same. How many graces have I received in these years from the Blessed Virgin through the Rosary: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I wish to lift up my thanks to the Lord in the words of His Most Holy Mother, under whose protection I have placed my Petrine ministry: Totus Tuus!" (Pope John Paul II)

"Her Pope"

On October 17, 1978, one day after his election, Our Blessed Mother told Fr. Gobbi that Pope John Paul II was the pope "whom [her] Immaculate Heart obtained from Jesus for the good of his Church." She continued, "He is a son especially loved by me because he has consecrated himself to my Heart from the beginning of his priesthood." (162c)

Obviously, then, this was the pope chosen by Heaven to lead the Church during all these years, precisely because he would entrust his papacy and the Church to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Following are just a few of the many references to him as "her pope" - "the one chosen by her" - "the greatest gift from her Immaculate Heart to the Church."

"Precisely when Satan was under the illusion that he had conquered, after God had accepted the sacrifice of Pope Paul VI and of John Paul I, **I obtained from God for the Church the Pope who had been prepared and formed by me.**

He has consecrated himself to my Immaculate Heart and has solemnly entrusted to me the Church, of which I am the Mother and Queen.

In the person and the work of the Holy Father, John Paul II, I am reflecting my great light which will become stronger, the more the darkness envelops everything." (January 1, 1979 - 167ijk)

"Pope John Paul II is the greatest gift which my Immaculate Heart has obtained from the Heart of Jesus for these times of yours, times of the painful purification.

He is my Pope. He has been formed by me. At every moment, he is led by me along the road of his personal consecration to your heavenly Mother, a road which he has followed with docility, with filial abandonment and with great trust. **He is an important part of my plan.** He is the Pope of my light..." (August 13, 1987 - 359abc)

"As a sorrowful and concerned Mother, I urge you all to look today to the successor of Peter, Pope John Paul II. He is my Pope. He is the Pope who has been formed by me in the depths of my Immaculate Heart. He is the Pope of my great light, in these times of greatest darkness." (June 29, 1988 - 385d)

"This Pope is the **greatest gift** which my Immaculate Heart has given you for the time of the purification and the great tribulation." (May 13, 1995 - 545d)

Pope Benedict X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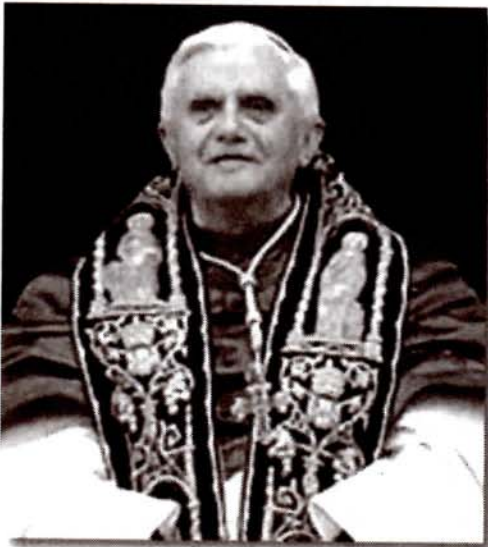
We will miss you, Holy Father, and all those things that made you one of the greatest popes of all time - your great love for the Church which you served untiringly, your strong leadership, your guidance, your compassion for the sick and dying and the many other attributes that made you a "masterpiece" of God's plan.

May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receive you in her loving embrace, and present you to her Son Jesus.

With God's choicest blessings,

Fr. Albert G. Roux

Rev. Albert G. Roux
National Director



On April 19, 2005, just before 6:00 p.m. Rome time (noon EDT), a plume of white smoke from the Sistine Chapel's chimney and the tolling of bells in St. Peter's square signaled that the conclave of Cardinals had elected a new pope. After being introduced by the Chilean Cardinal, Pope Benedict XVI delivered his first address to the world from the central balcony of St. Peter's Basilica:

Dear brothers and sisters,
After the Great Pope John Paul II, the cardinals have elected me, a simple, humble worker in the Lord's vineyard. I am comforted by the fact that the Lord knows how to work and act even with insufficient instruments. And above all, I entrust myself to your prayers. With the joy of the risen Lord and confidence in his constant help, we will go forward. The Lord will help us and Mary his most holy mother will be alongside us. Thank you.

"And above all, I entrust myself to your pr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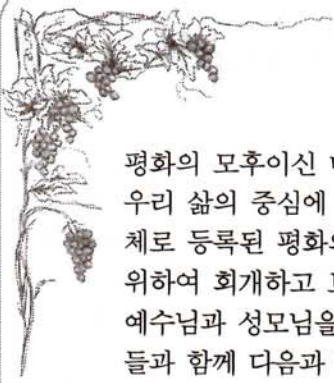
Speaking of the late Pope John Paul II, Pope Benedict XVI said during his message after the first Mass celebrated by him as pontiff (April 20, 2005): **"I seem to feel his strong hand holding mine, I feel I can see his smiling eyes and hear his words, at this moment particularly directed at me: 'Be not afraid.'"** Amen!



Jesus I Trust In You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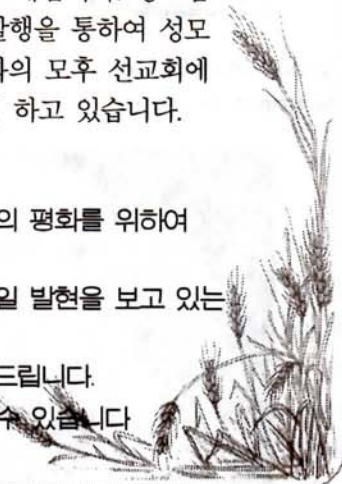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뉴욕교구 가톨릭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발행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회개하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성모님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메주고리에" 소식지의 의 꾸준한 발행을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선교 사명에 쓰여지고 있으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 회원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보내드립니다.
2. 메주고리에 순례 때와 매월 성모 신심 첫 토요일에 회원들의 기도 지향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모든 기도 지향"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에게 전해 주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과 가정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성명 : _____ 영문 : _____ 영세명 : _____

주소 : _____

전화(H) : _____ 전화(O) : _____ 날짜 년 월 일

E-mail : _____ 소속본당 : _____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 _____ 기존회원 () 새회원 ()

보내실곳 ▶ 미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
Queen of Peace Missionary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 한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02-2281-3236 Fax 02-2298-3135)
 옥수동 성당 :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1-12 전화 : 02-2297-2038
 후원금 입금 계좌: 신한은행 242-01-007905 (예금주: 평화의 모후 선교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사. 신동배. 안영란. 김준애. 백안셀모. 이종숙. 김봉희. 류수영. 김태자.
 오지은. 허데레사. 석선옥. 노마리아. 유화윤. Muzzanghee. 박현희. 강현정.
 이성규. 홍세실리아. 이마리아. 최경숙. 이윤. 황정애. 최루시아. 임주리아. 전영규.
 박재마. 김영옥. 박보나. 잔슨윤숙. 장성치. 김금식. 김성희. 김금미. 나웬디. 오순옥
 Julie Ripp. 이정우. 오베로니카. 김영희. 김철. 조아일린. 한울리안나. 박정희. 조유경.
 조엘렌. 원세영. 전금주. 최화숙. 김명주. 신영. 로사 스콧트. 신규상. 유수연. 이종숙.
 장레지나. 이석운. 서재원. 함순옥. 윤해준. 임기현. 장미경. 김태자. 태자스콜라.
 박태찬. 유수호. 전금주. 이프란치스카. 김울리안나. 이인영. 한울리안나.
 배골롬바. 박영옥. 민현희. 강찬규. 김지훈. 배순주. 이영우. 조영부. 황옥주.
 조애숙. 양대숙. 이재선. 유영애. 구도인. 이계숙. 이은경. 최동숙. 최경미.
 표상순. 이진민. 신규상. 익명. 미네소타 성당 평화의 모후 기도회.
 윤종식 신부.
 캐나다: 송정재. 김난희. 밴쿠버 성당 평화의 모후 기도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위원 : 오영숙,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해인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 후원금 합계	\$ 5,057.00
지출 (27호 소식지)	
인쇄, 발송, 후원회원봉투 인쇄	\$ 7,490.00
통신비	\$ 785.00
교통비	\$ 977.00
기타 비용	\$ 245.00
• 지출 합계	\$ 9,597.00
• 26호 잔액 이월금	- \$1,520.00
• 27호 부족금	- \$3,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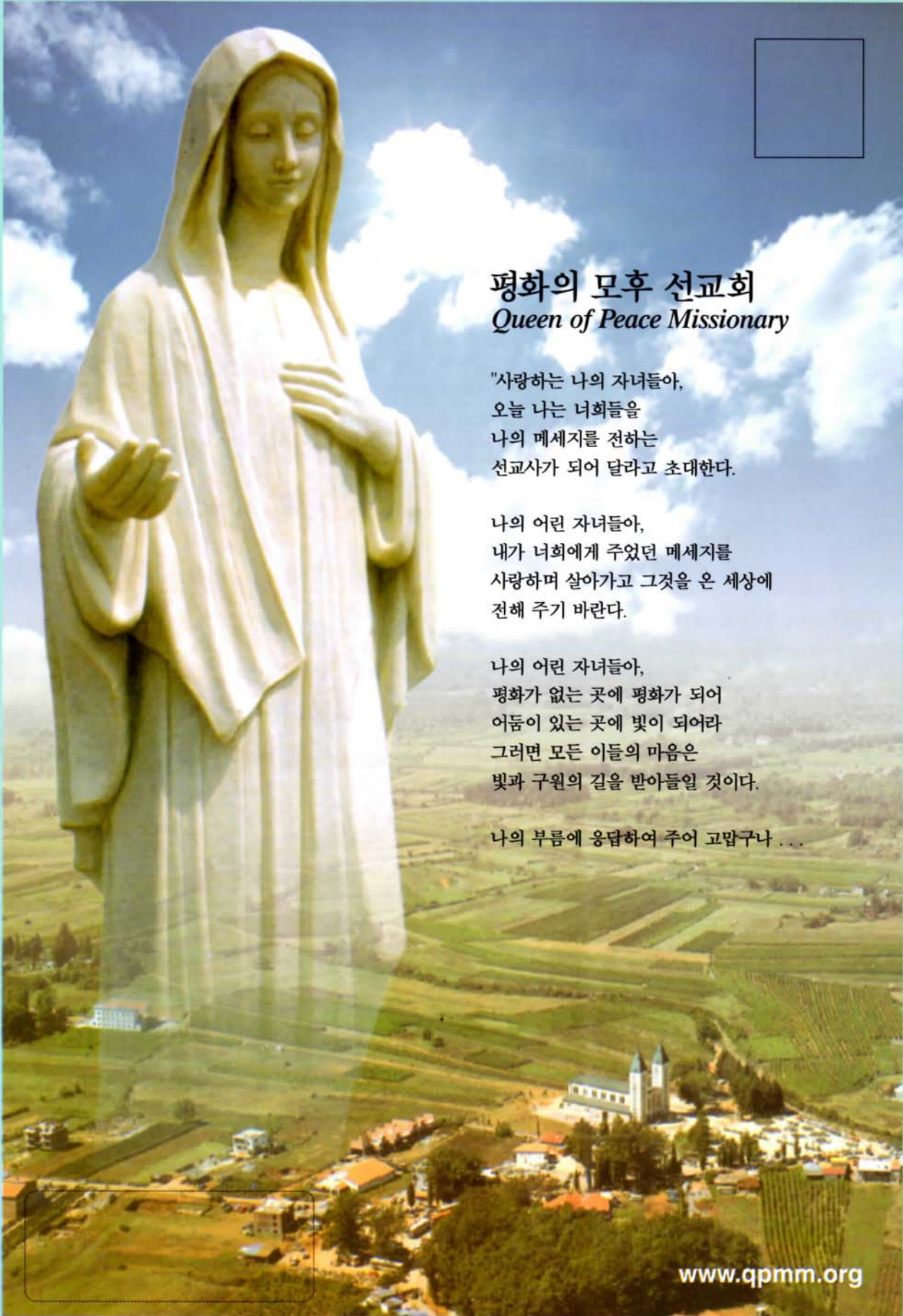
설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도에서 일생을 헌신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어느 선교사님이 그만 사고로 한 쪽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로서는 당연히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야 할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제 남은 한 팔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까요?"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도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쓰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굿 뉴스 에서 발췌.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달라고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

www.qpmm.org

USA

남그레고리오 (Gregory Nam)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KOREA

노선택 마리노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1-12
Tel. 02-2281-3236 / Fax. 02-2298-3135
E-mail: soulbassmaster@hotmail.com